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165>

JCCT 2024-5-20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의 단절/거절도식에 미치는 영향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비교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Adults'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A Comparison of Moderating Effects of Inhibition and Reinterpretation

박한나*

HANNAH PARK*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인의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이 관계에서 표현적 억제와 인지적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전과 충청지역 대학원생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2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인의 단절/거절 도식의 연관성에서 억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현적 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기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반면, 억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장기간에 걸쳐 성격처럼 굳어진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표현적 억제 전략은 단절/거절 도식을 포함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강도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아동기 학대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부적응적 도식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함께, 심리적 개입에서 억제와 재해석 전략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학대경험, 단절/거절도식, 정서조절방략, 억제, 재해석

Abstract This study illum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ompares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ressive supp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within this relationship. Conducting a self-report survey among 220 graduate students in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data from 210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notably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suppression, but not cognitive reappraisal,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Specifically, high levels of expressive sup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egative impact of childhood abuse on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whereas low levels of suppression increased this negative impact. This suggests that for individuals with long-stand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which have solidified over time akin to personality traits, cognitive reappraisal strategies may be less effective in inducing change. Conversely, expressive suppression strategies may more effectively reduce the intensity of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among other early maladaptive schemas. Thes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develop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mitigate its resultant maladaptive schemas.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potential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suppression and reappraisal strategies 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Key words : Childhood Abuse Experiences,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uppression, Reappraisal

*정회원, 주안대학원 대학교 선교학과 겸임교수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2013samuel@naver.com

Dept. of Missiology, Juan Univ, Korea

1. 서론

아동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한 사건들은 개인의 성장, 정신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초래하는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밝혀져 왔다. 이러한 학대 경험은 성인기에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McLaughlin et al. (2012)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신 장애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은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PTSD, 약물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2-5]. 더욱이, 이러한 경험을 한 인구 집단에서는 정신분열증의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7배 이상 높고, 성격장애 발생률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

이외에도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문제, 낮은 사회 참여도 및 사회적 박탈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상 형성 및 정서 조절의 어려움 등이 이러한 결과에 포함된다[8-11].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복잡한 문제들의 배경에 대하여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의 배경에는 초기부적응도식이라는 근본적인 인지적 프레임이 존재한다[12].

초기부적응도식은 아동기 발달의 핵심적 욕구들이(안정감, 안전감, 보살핌 등) 초기 환경의 외상적 경험이나 결핍 등에 의해 좌절될 때 형성되는 심리적 구조를 말한다[12]. Young 은 초기부적응 도식을 5개의 도식 영역(단절/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타인지향성, 손상된 한계, 과잉경계 및 억압)으로 분류하였다. 초기부적응 도식 중에서 단절/거절도식이 성인기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손상을 크게 일으키는 강력한 도식으로 알려져 있다[13]. 단절/거절 도식은 안정감, 소속, 수용, 존중 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적응 도식을 뜻하고, 이 도식의 하위 도식으로 4개, 즉 유기/불안정 도식, 불신/학대 도식,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함/수치심 도식,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이 있다([12].

아동기 외상 경험이 클수록 성인기에 높은 수준의 단절/거절도식을 활성화시키면서 자기 패배적인 감정과 부정적 사고 패턴, 정서적 갈등 및 대인관계 어려

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자들이 자신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단절/거절 도식의 활성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서조절 전략이 정신건강의 보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5]. 개인은 우울, 불안, 외로움 등과 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16]. 정서조절전략이란 개인이 불쾌한 감정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서 관리 기법을 말합니다[17].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 또한 감소하였고, 정서조절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다[18-20].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 초기부적응 도식을 촉발시킨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정서조절 전략은 사용은 불쾌한 감정이 더 강화되지 않게 함으로써 단절/거절 도식의 활성화 정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21].

한편, Gross는 정서조절전략의 하위 요인으로 억제와 인지적 재해석을 제안하였다. 인지적 재해석(cognitive reappraisal)은 상황을 재해석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며, 이해하는 과정을 수단으로 정서를 조절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억제(expressive suppression)는 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의 강화를 예방하려는 전략이다. Gross와 Levenson는 재해석이 억제보다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라고 주장하였고[22], 이와 유사한 결과가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9,23]. 그러나 재해석과 억제 모두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억제가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대인관계에 배려 목적의 억제 전략은 심리적 건강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다[24-26]. 이러한 억제와 재해석의 효과에 다소 비일관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보다 적합한 정서조절 전략에 초점을 둔 상담 개입 및 집단 교육을 가능하게 도와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변인으로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두 가지 전략의 조절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1종 오류의 누적을 예방하기 위해 조절효과 모형에 해석과 억제의 상호작용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상호작용 변인을 삭제 후 최종적인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27].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세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 단절/거절도식의 관계, 억제, 재해석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단절/거절의 관계에서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과 충남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 무선표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었다. 수집된 220명의 설문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나타난 총 10부의 설문을 제외한 후 210명의 자료를 연구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96명(45.7%), 여성이 114명(54.3%)이었고, 연령은 20대 155명(73.8%), 30대는 22명(10.5%), 40대는 20명(9.5%), 50대 이상은 13명(6.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의 개발하고, 김은정, 김진숙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TQ-SF)을 이용했다[31]. 이 척도는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로는 정서적 학대(5개 항목), 정서적 방임(5개 항목), 신체적 학대(5개 항목), 신체적 방임(5개 항목), 성적 학대(5개 항목)가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정서적 방임의 5개 문항과 신체적 방임의 1개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을 경우 아동기 학대 경험이 더 심각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하

위 요인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80, 정서적 방임이 .94, 신체적 학대가 .84, 신체적 방임이 .55, 성적 학대가 .70으로 측정되었다.

2) 단절/거절도식

단절/거절 도식의 측정을 위해, Young에 의해 개발되고 이미열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Young의 초기부적응도식 단축형 설문지(YSQ-SF) 중에서, 단절/거절, 타인지향성, 손상된 자율성 및 성과, 과잉경계 및 억압, 손상된 한계 등 5개 영역 중에서 오직 단절/거절 도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평가하였다[32]. 이 설문지는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절/거절 도식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단절/거절 도식에 대한 전체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결핍이 .86, 유기감/불안정 .88, 결함감/수치심 .93, 불신/학대 .85, 사회적 고립 .90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방략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에 의해 개발되고 손재민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정서조절방략척도(ERQ)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재해석 방략(6개 문항)과 억제 방략(4개 문항)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10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다. 억제 방략에 속하는 4개 문항은 역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억제 방식의 정서 조절이 강함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신뢰도 계수가 .63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석 방략의 신뢰도는 .86, 억제 방략의 신뢰도는 .77로 측정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와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29]. 첫째,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재해석 및 억제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2를 실시하였다. 넷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변수들을 기반으로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최종

조절 효과 모델을 검증하고, 상호작용 효과와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신명조 9)

변인 간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기학대경험은 단절/거절 도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r=.405, p<.001$)으로 나타나고, 재해석($r=-.076, p>.05$) 및 억제($r=-.002, p>.05$)와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단절/거절 도식은 재해석과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r=-.031, p>.05$), 억제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328, p<.001$). 마지막으로 재해석은 억제와 유의한 부적상관($r=-.256, p<.001$)을 보였다. 상관 분석 결과에서 재해석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변인 간의 상관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하여[29], 이후 분석에서 억제와 재해석을 함께 조절효과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1.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verage, Standard Deviation

변인	1	2	3	4
1. 아동기학대경험	1			
2. 단절/거절도식	.405***	1		
3. 재해석	-.076	-.031	1	
4. 억제	-.002	-.328***	-.256***	1
평균	35.091	40.833	27.219	17.500
표준편차	10.146	14.518	6.357	4.306

*** $p<.001$

2.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분석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도식 간의 관계에서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상대적 비교를 위해 PROCESS Macro Model 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기학대 경험과 억제, 재해석 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에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재해석의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24, p>.05$). 반면에 아동기 학대 경험과 억제의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074, p<.001$). 이는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도식의 관계에서 재해석에 비해 억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조절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2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2. Results of Testing Moderator Effects

예측변인	B	SE	t	F
아동기학대경험	.594	.083	7.191***	14.297***
재해석	-.246	.136	-1.803	
억제	-1.110	.200	-5.537***	
아동기학대경험×재해석	-.024	.017	-1.453	
아동기학대경험×억제	-.074	.018	-4.134***	

*** $p<.001$

3.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의 조절효과 분석

앞서 재해석과 억제의 조절효과 비교 검증에서 억제 변인만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도식 간의 관계에서 억제 변인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기학대 경험과 억제의 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한 후에 분석하였다. 1학대경험과 억제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억제의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059, p<.001$). 이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미치는 영향이 억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3. 역제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3. Results of Testing Moderator Effects

예측변인	B	SE	t	F
아동기학대경험	.615	.083	7.439***	32.575***
역제	-1.01 1	.195	-5.187***	
아동기학대경험× 역제	-.059	.015	-3.921***	

*** $p < .001$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1S 조건값을 이용한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역제가 높은 집단에서 아동기학대경험이 증가하더라도 단절/거절 도식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역제가 낮은 집단에서는 아동기학대경험이 증가할 때, 단절/거절 도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학대경험이 단절/거절도식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해 역제 변인이 완화효과(buffering effect)를 갖는 조절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35].

아동기 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사이에서 역제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제의 각 조건에 따른 단순 기울기는 모두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하한과 상한 값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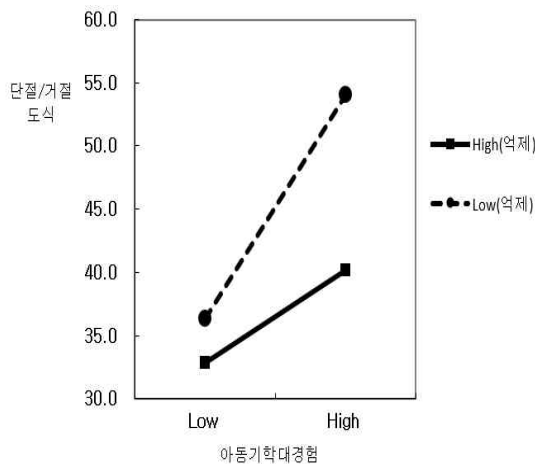


그림 1. 상호작용효과 그래프

Figure 1. A Graphical Presentation of Moderator Effects

표 4. 단순기울기 검증

Table 4. Results of Testing Simple Slopes

역제	B	SE	t
-1표준편차	.870	.111	7.860***
+1표준편차	.359	.099	3.617***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역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동기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과 초기부적응 도식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18,30]. 재해석은 단절/거절 도식과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역제는 단절/거절 도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정서조절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부적 상관이 보고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0]. 아동기 학대경험과 재해석, 역제와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외상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31]. 마지막으로 재해석과 역제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역제와 자기 개방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고하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25].

둘째, 아동기 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의 관계에서 역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 역제 변인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제 변인의 조절효과 양상은 역제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의 정도가 단절 거절 도식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4,18,30], 역제 전략이 외상후 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5].

재해석에 비해 역제의 조절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아동기 학대 경험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감정이 성격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재해석 전략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접근이므로 누적된 부정적 감정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므로 단절/거절 도식이 언제라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억제 전략은 강하게 형성된 부정적 감정 자체를 참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의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단절/거절 도식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억제의 숨은 동기에 따라 억제가 때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정서 표현의 억제와 표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회피 목적으로 억제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성숙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후자는 심리적 건강에 역기능적 작용을 할 수 있다[26]. 이 주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임상군이 아니기에 회피 목적의 동기보다는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동기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제가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하자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클 때, 재해석보다는 억제가 부정적 감정의 진행을 멈추어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위한 배려 목적이 있을 경우 유대와 친교의 의지가 개입되어 단절/거절 도식의 활성화 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억제의 숨은 동기를 고려하여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회피를 위한 방어적 억제와 관계 유지를 위한 성숙한 억제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수행하여 억제의 조절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와 성인 교육 및 상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제와 재해석 전략이 단절/거절 도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의 관계에서 재해석에 비해 억제가 더 효과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성인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내담자의 억제 전략의 질과 정도를 평가하여 상담 전략을 계획하거나 억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수들을 자가 보고 형태의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단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 정서조절 및 단절/거절 도식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대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의 성인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해석 전략이 억제 전략에 비해 조절효과가 부족하였으나 여러 연구에서 재해석 전략은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억제 전략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절/거절 도식에 대해 억제와 재해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cLaughlin KA, Greif Green J, Gruber MJ, Sampson NA, Zaslavsky AM, Kessler RC, "Childhood Adversities and First Onse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a National Sample of US Adolescents," *Arch Gen Psychiatry*, Vol. 69, No. 11, pp. 1151-1160, 2012
- [2] Sachs-Ericsson, N., Verona, E., Joiner, T., and Preacher, K. J., "Parental verbal abuse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in adult in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93, No. 1-3, pp. 71-78, 2006
- [3] Read, J, and Bentall, R. P.,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theoretical, clinical and primary prevention implic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200, No. 2, pp. 89-91, 2012
- [4] Bendall, S, Alvarez-Jimenez, M, Hulbert, C. A, McGorry, P. D, and Jackson, H. J., "Childhood trauma increases the risk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sponse to first-episode psychosi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 46, No. 1, pp. 35-39, 2012

- [5] Rodgers, C. S., Lang, A. J., Laffaye, C., Satz, L. E., Dresselhaus, T. R., and Stein, M. B., "The impact of individual form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health behavior," *Child abuse & neglect*, Vol. 28, No, 5, pp. 575–586, 2004
- [6] Cutajar, M. C., Mullen, P. E., Ogloff, J. R., Thomas, S. D., Wells, D. L., & Spataro, J.,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in a cohort of sexually abused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67, No, 11, pp. 1114–1119, 2010
- [7] Johnson, J. G., Cohen, P., Brown, J., Smailes, E. M., and Bernstein, D. P., "Childhood maltreatment increases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early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56, No, 7, pp. 600–606, 1999
- [8] Busby, D. M., Walker, E. C., and Holman, T. B., "The association of childhood trauma with perceptions of self and the partner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Vol. 18, No, 4, pp. 547–561, 2011
- [9] Messman-Moore, T. L. and Coates, A. A.,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Vol. 7, No, 2, pp. 75–92, 2007
- [10] Currie, J., and Spatz Widom, C.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Vol. 15, No, 2, pp. 111–120, 2010
- [11] Hughes, K., Lowey, H., Quigg, Z., and Bellis, M. A. "Relationship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mental well-being: results from an English national household survey," *BMC public health*, Vol. 16, pp. 1–11, 2016
- [12] Young, J. E., Klosko, J. S., and Weishaar, M. E.,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guilford press*, 2006
- [13] Young, J. E., Rygh, J. L., Weinberger, A. D., & Beck, A. T.,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A step-by-step treatment manual*, Vol. 4, pp. 250–305, 2008
- [14] Hanna Park.,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and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 on adult mental health: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Vol. 21, No, 2, pp. 59–77, 2019
- [15] Hyeji Lee., "Research trends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Education*, Vol. 6, No, 1, pp. 168–182, 2023
- [16] Gomina.,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 339–345, 2023
- [17] Gross, J. J.,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 3, pp. 271–299, 1998
- [18] Gross, J. J.,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 3, pp. 271–299, 1998
- [19] Ari Kim, & Hyeonju Jo.,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on emotions and automatic thinking in insecurely attached adul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apers*, Vol. 2013(1), pp. 279–279, 2013
- [20] Youngran Gil, Miran Park, & Jiyeon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arly maladaptive schema, stress, avoidance coping behavior, emotion regulation,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Human Development Research*, Vol. 23, No, 2, pp. 105–129, 2016
- [21] Farrell, Joan M. "*Clinical guide to psychological schema therapy*," Seoul: Hakjisa, 2018.
- [22] Gross, J. J., and Levenson, R. W.,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6, No, 1, pp. 95, 1997
- [23] Na-young Moon., "Th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negative emotions in college students who suffered child abuse," Chung-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24] Eunsil Lee., "The impa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psychological adaptation," Catholic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 [25] Geon-hye Seol, Min-hee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pression suppression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growth: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social support in response to traumatic ev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6, pp. 392–403, 2021
- [26] Haeyeon Choi, Kyunghwan Mi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validation and suppression concept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scale for emotional expression,"

-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ety and Personality*, Vol. 21, No. 4, pp. 71-89, 2007
- [27] Youngseok Seo., "Verification of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s and considerations when analyzing data,"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2, No. 4, pp. 1147-1168, 2010
- [28] Jaemin S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s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omparison of cognitive reinterpreters and emotion expression suppressor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5
- [29] Hayes, A. F., "*Introduction to media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3
- [30] Sook-Kyung Jang, Min-Jeong Kim,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and dispositional optim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2, No. 1, pp. 339-364, 2020
- [31] Soyeon Kw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motions,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emotional expressiv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rauma," Inje University Master Thesis, 2019